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價 一部(朝夕刊)金五錢 一個月 金壹圓參拾錢 六個月 先金七圓七拾五錢 一年 先金拾五圓(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一行(五號活字) 一圓 四號活字 ... 特別指定 ...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朝鮮日報社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

論說

中國禍亂의 再燃性

三派關係는如何

一

奉直의 提携가 길지못할것은 中國의 事情을 아는者가 한가지로 斷定하든바이라 그리고 利害를 따라 推移하야 일즉 一貫한 信義를 지킨일이 업는것은 現下 彼等의 行動이 明白하게 表示하는바이라 그는 敏敏하게 例證을 들을 必要도업다 奉派와 直隸派와 段祺瑞一派와 國民軍의 幹部들이 段祺瑞에 向하야 「쿠데타」를 行하고 吳佩孚를 向하야 時局收拾의 大任으로써 맛기니 前에 吳를 謀叛한 彼等은 이제 다시 吳를 爲하야 段을 謀叛함이어니와 그 利害를 보아 推移함에 밝은것은 놀랠만하다 吳氏가 이를 拒絶하고 張으로 더부러 提携하야 그들을 北京으로부터 放逐하엿스니 吳氏가 스스로 實明함을 表함이다 그러나 吳張兩氏가 舊怨을 버리고 兄弟의 誼를 매젓다하나 이 云云間이 엇고 事實이라 하더라도 그 結果는 우슨바이엇다

二

齊燮元이 吳氏로 더부러 直派의 首領이엇스나 그의 勢威가 남의 힘을 비를 必要업스매 彼는 곳 一거의 雄으로써 吳에게 忠하지 아니하엿다 그러나 彼가 一敗塗地하야 亡命의 몸이되매 비롯오 吳氏를 爲하야 四方에 使하니 이는 飢鷹이 主人을 맛나고 배불으면 날너가는 者이다 孫傳芳이 吳氏의 麾下이라 昔日의 恩誼가 特深한바 업지마는 彼가 五省聯合의 司令으로 江蘇에 覇하매 吳氏에게 그대지 忠하지 아니하엿다 만일 吳氏로서 彼를 節制코저하는바 잇섯스면 彼는 벌서 吳에게 叛하엿슬것이다 이제 孫이 다시 浙省의 兵으로 徐州에 集中하야 張宗昌으로 더불어 山東을 다투고저한다하니 아즉 急히 信認할수업스나 彼의 東南에 對한 地盤이 구드면 다시 北進을 計할것은 明瞭하다 그러나 漢吳奉張의 提携하는 동안 孫은 오히려 觀望을 持續할것이다

三

吳氏가 國民軍各派와 提携함을 拒絶하니 칫재로 그 宿怨이 아즉 깁흠에 因함이오 反覆하야 덧업슴이 信賴키 어려움을 더욱 戒懼함이다 李景林 張宗昌이 早晩에 張作霖을 背할것은 識者가 벌서 豫料한바이라 李景林이 不平을 먹어품고 張宗昌이 다음으로 또 異圖를 가진다하니 後者의 態度는 지금도 不明하나 李景林의 叛逆을 圖하는것은 當然한 일이다 李가 이미 叛하면 張宗昌이 스스로 動心치 아니할수업스니 그의 異圖는 孫傳芳이 南에서 奉張의 復興에 人心이 자못 怨憤하는바 잇슴진대 彼는 오래기여 그 犬馬의 勞를 取하지 아니할것이다 靳雲鶚이 李景林과 함께 國民軍과 提携하라하는바 잇다하니 彼또한 一省의 號令함을 조아하야 그 오히려 安住의 地를 더듬으니 일즉 山東省의 督軍될것을 擬하는바 잇섯스나 이제 水泡에 돌어갓슴에라

四

馮玉祥이 莫斯科에 잇서 南口의 國民軍으로 北京의 奪取를 慫慂한바잇다하고 國民軍은 이미 山西를 迫擊하기 시작하엿다하니 모다 얼마의 聯勢로써 持續할는지는 疑問이나 現下의 形勢가 어여항을 不許하고 北中國의 風雲은 지금 아즉 거두지 못할것이다 唐生智의 擧兵이 湖南의 安穩을 깨트리엇고 趙恒惕가 江西에 軍長을 지우에는 日淺하고 士心이 附치 못한바 잇스려니와 長江의 形勢가 이 安定되면 吳佩孚는 徐徐히 進取를 計하리니 彼가 顏惠慶內閣을 犧牲으로 한다하나 顏閣이 갈지라도 彼等이 吳張의 提携는 堅固치 못할것이다 顏이 일즉 曹錕의 總統下에 잇서 吳를 爲하야 對張의 令을 兩署하엿스니 曹氏가 비록 下野하엿스나 張氏가 顏氏에게 四億의 蒼生이 公을 기다려 懇切한것을 進言하엿다함은 修辭가 넘우 아름다운 者이다 張氏와 吳氏가 모다 原駐地에 잇서 王士珍等으로 時局을 彌縫케 할지라도 그 勞가 長久치 못하려든 만일 서로 猜顚하야 裏面의 暗鬪를 試할진대 그 破裂은 더욱 速할것이다 이제 奉派는 四面受敵의 稱이 잇다

聯合軍의 南口攻擊開始

國軍의 山西攻擊을 듯고

(北京二十五日發) 國軍의 山西攻擊이 猛烈하다는 報에 依하야 聯軍은 南口總攻擊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는데 一兩日中에 開始할터이더라

赤露大使秘書長 朱齊青被逮取調

奉天에서 中國官憲에게

最近駐中勞農大使館附秘書長中國人朱齊青은 「카라한」大使의 命을 受하고 五月初旬北京出發哈爾賓에 와서 同地勞農總領事館과 連絡하야 南北滿洲에 잇는 中國人의 赤化狀況을 視察하엿는데 同人은 哈市中國人을 紹介하야 參議楊宇霆에게 面會를 求하엿든바 楊宇霆은 右朱齊青의 素性을 知悉하고 誘致식힐 目的으로 面會를 承諾한 後 其旨를 憲兵司令部에게 通知하엿는데 司令部에서는 同人의 來奉과 共히 逮捕하야 目下嚴重取調中이더라

軍縮起草分科會 難關中에 審議終了

白耳義提案은 承認

(제네바二十四日發) 軍備縮少委員會軍縮案起草小科委員會의 本日會議에서는 審議未了의 分을 全部完了하엿슴으로 二十五日은 드듸어 同起草分科委員會報告中의 重要字句에 關하야 討議를 行하기로 되엿다 右報告書는 다음 準備委員會總會議에 提出할터인데 起草委員等은 各種의 難問題에 逢着함에 不拘하고 着着 共審議를 進行함에 對하야 크게 滿足의 意를 表한다 尙 起草分科委員會는 各國이 各其防備軍費를 計量하는 同時에 各國의 承諾을 得하고 軍備縮少의 程度를 決定하기 爲하야 聯盟理事會에 對한 被侵略國援助의 方法을 決定하라고 諸提案을 直히 審議할것을 要請하기로 決定하엿다 更히 起草委員會는 聯盟規約第八條의 規定에 依하야 聯盟國의 軍費能力과 및 軍事上의 目的에 强要할수잇는 各工業의 狀態에 關하야 各各 情報交換機關을 設하고저 白耳義提案을 承認하엿다

在漢口英國 煙草工場罷業

女工解雇가 發端되여서

(東京電) 某處着電=漢口中國街英國煙草會社가 自動包裝機를 新設하고 女工을 解傭하라함에서 發端되여 同分工場에서 十三日부터 本工場約二千의 職工이 罷業을 開始하엿더라

海軍機 山頂에 衝突

搭乘者는 無事

(中舞鶴電) 橫須賀를 出發하야 飛航을 繼續하야 舞鶴에 向하든 途中 琵琶湖에 不時着陸한 橫須賀海軍航空隊의 第五號飛行艇에는 吳中佐中島大尉等五名이 搭乘하고 廿五日午前七時四十分濃霧를 冒하고 舞鶴에 向하야 午前九時頃京都府加佐郡與保呂村舞鶴要港部上水道水源地附近의 上空에 到達할 際에 濃霧로 因하야 針路를 誤하야 山頂에 衝突하야 機體는 破碎되엿는데 吳中佐는 顔面에 負傷을 하엿스나 他五名은 無事하더라

廿六日 正式會見

聯立組閣에 關하야

(東京電) 床次氏는 二十六日午前十時首相官邸를 訪問하고 若槻首相과 會見한 後 過般若槻首相으로부터 要請을 受한 聯立組閣에 關한 本黨의 態度에 對하야 正式回答을 하기로 決定하엿더라

水野子會見

重要案을 依賴?

(東京電) 二十五日午前十時小笠原伯及小橋本黨幹事長兩名은 和作하야 大久保水野直子를 訪問하고 會談二時間에 亘하야 正午後에 辭去하엿는데 右는 過日若槻首相의 往訪要件에 對한 床次總裁의 肚裡에 就하야 或重要한 案件을 水野子를 通하야 若槻首相에게 依賴한것으로 觀測되더라

丁抹機 奉天着陸

二十五日午後에

(奉天二十五日發至急電) 「헬」訪日機는 午後四時四十八分 奉天에 無事着陸하엿더라

三陟炭鑛線 線路調査着手

◇二十七日부터

東海線線路調査에 出張中의 調査班은 三陟炭鑛支線의 線路調査를 二十七日부터 二週間을 要할 豫定으로 着手하기로 되엿는데 區間은 三陟田頭里間의 線二十里에 無煙炭잇는것은 江原道三陟郡所達面으로서 先月에 終하엿다 平壤海軍鑛業所의 小栗技師가 調査한바에 依하면 厚二尺乃至三尺의 炭層三枚가 露出하고 含炭量은 延長數里에 涉하야 無煙炭으로서 確히 有望한 鑛脈인데 埋藏量도 一億噸에 達할수 잇슴으로 從前 燃料局에서는 從遂히 開發하는 境遇에는 三陟의 港灣이 港灣으로 不適한 點에서 不得已 東海岸線을 早速히 敷設하거나 或은 注文津으로부터 四十五哩의 炭鑛鐵道를 敷設하든가 어써한 方法이든지 取할 方針이라더라

國葬에 內閣代表 岡田文相參列

◇六日東京發

(東京電) 岡田文相은 故李王殿下國葬에 內閣代表로서 參列하기로 決定하엿는데 文相은 六日午前八時四十五分特急으로 京城에 直行할터이더라

船舶無電規則

十一月中施行

(東京電) 五十一議會를 通過한 船舶無線電信法은 來十一月一日부터 施行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五日官報로 施行規則을 公布하엿더라

戶籍協議會開催

京城地方法院管轄內各府郡面의 戶籍係主任並書記로써 組織된 戶籍協議會는 來二十七、八、九의 三日間京城府內에서 第二回協議會를 開催한다더라

臨津一帶測量

水害滋甚하던 堤防工事되기를 沿江住民이 渴望

坡州郡臨津江附近一帶의 住民들은 擧皆他人의 土地를 小作하는 現狀으로도 無理한 地主들의 搾取의 苦를 격거가면서 秋期의 收穫으로 唯一한 希望을 삼는 慘狀에 잇는데 每年夏期가 되면 氾濫하는 洪水로 因하야 堤防이 破潰되며 따라서 農作物은 半減或은 全滅을 當하야 一粒의 收穫도 엇지 못하고 作人들은 全部가 衣食住에 餘地업는 破滅을 當하는 形便이 잇는데 多幸히 內務局土木課로부터 技手魏在爽 島田金次兩氏가 出張하야 現今 汶山里七番地에 事務所를 두고 三個月間豫定으로 人夫數十名과 共히 六月二三日頃부터 臨津江(坡州一帶 開城長湍連川一部)을 實地測量하며 河川을 一一히 調査한다하며 水害가 極히 甚한 곳은 堤防工事도 施할듯하다는데 臨津江附近住民들은 이 機會에 充分한 堤防工事가 되고 못됨에 依하야 死活問題가 決定되리라고 一般은 當局의 處置를 注視한다더라(汶山)

寧邊電話開通

六月一日부터

平北寧邊郡의 電話는 六月一日부터 交換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

一斗落小作에 定價七圓

兩小作人은 警察에 呼寃

全南順天郡海然面新城里孫京餡은 同里附近에 在한 順天郡順天面大手町金文鉉의 畓四十五斗落을 去五月初五日頃에 買收한바 每斗落에 相當한 時價外에 五六圓式을 더주엇다고 後悔하더니 買受不幾日에 아즉 移轉도 하기前 小作權移轉에 着手하야 其中上土는 全部秀耕自作하고 中以下의 土地는 每斗落에 七圓式을 定價로 放賣하는데 同小作人中 金達文(一斗落小作) 金玉汝(二斗落小作)는 其要求에 應키 寃痛하야 順天警察署에 陳情까지 하엿다더라(順天)

東友靑年會 少年部新組織

市外東幕에 잇는 東友靑年會에서는 隣近少年의 前途를 指導하자는 精神下에 少年部를 設置키로 決議되야 去九日午後一時同會舘內에서 東友靑年會少年部當務執行委員 朴永均氏의 司會로 創立總會를 盛大히 擧行하는 同時에 入部한 少年이 五十八人이며 執行委員은 金龍伊外五人으로 選定되엿든바 委員改選과 增選할 必要가 잇다하야 去二十二日同會舘에서 緊急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左記와 如히 執行委員을 改選하는 同時에 來六月十三日午前十時東幕上下里와 土亭里一帶를 行列一巡한後 同會運動場에서 定期運動會를 擧行하기로 決議되엿다더라

△改選된 執行委員
總務部 金龍伊 延昌學 金文鎬
敎養部 景大鎬 徐福成
運動部 韓孝錫 金成泰 姜千萬 金圭高(高陽)

新設女校盛況

雄基女子靑年會에서는 年齡關係로 普通學校에 入學치 못하는 少女들의 應急敎濟策으로 去十日부터 女子夜學을 開催하엿는바 志願者가 每日所加되야 벌서 夜學生이 四十餘名에 達하는 盛況이며 또한 今後도 志願者가 만흘 모양이라는데 至今 每日午後七時부터 同十時까지 日語、算術、朝鮮語、唱歌、習字等을 每夜三時間式 敎授한다하며 敎師는 植鶴珠女史와 宋禧淑、金錫祿、朴春蘭、金容圭諸氏가 擔任하야 매우 良好한 成績을 擧하야 간다는데 同夜學生中에는 五六名의 婦人들까지 잇다더라(雄基)

雄基에 竊盜盛行

職業을 不得하야 窮困에 陷한 結果

近來雄基市內에는 竊盜가 頻頻하야 警察은 不眠不休하고 活動中인데 前月에도 竊盜犯三十餘件中에 二十八件까지는 蹤影도 엇다는바 이제 竊盜犯이 如斯旺盛하는 理由를 알아보면 今年에 入하야 雄基築港工事가 始作된다는 所聞을 듯고 他地方에서 勞働을 目的하고 入來한 사람이 不少하나 其實築港도 始作되지 안코 勞働할곳도 업서 極度의 困窮에 陷한 結果 最後의 手段으로 如斯한 犯行까지 하게되는것이라고 警察當局者는 말하더라(雄基)

長湍幼園曙光

當地有志奮起로

長湍邑內에 在한 長湍幼稚園은 設立以來三四年間에 多數한 幼兒를 敎養하야 오든바 到今 維持經費가 困難하야 慘憺한 處地에 陷하엿든바 當地一般有志들은 自願捐助하야 該幼稚園維持에 全力을 注한다는데 벌서 義捐金이 數百圓에 達하얏다하며 現在兒童數는 四十名이라더라(長湍)

端川靑聯創立延期

端川靑年聯盟創立準備委員會에서는 二十日에 創立大會를 開코저 地方에 同準備委員을 出張케하는 等 여러가지로 準備가 整頓되엿든바 去十九日에 當地警察署로부터 因山中임으로 一切集會를 禁한다함으로 無期延期되엿다더라(端川)

近八千移住民中 大部分이 無消息

家族에게 送金者는 不過二人 咸南移住民의 現狀

數年內의 咸南道移住民은 七千五百餘人內에 間島方面에 移住한 者가 五千餘人 其他는 日本東京大阪九州方面과 滿洲方面인데 間島에 移住한 者中 每年二千圓을 家族에게 送金하는 者는 二人을 除한 外에는 殆히 消息조차 無한 者가 大部分이라고 한다(元山)

金剛山探勝船

發着時間變更

朝郵에서 金剛山探勝船으로 六月一日부터 元山長箭間에 就航할 咸北丸의 兩地發着時間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同社의 形便에 依하야 左記와 如히 時間을 變更하엿다더라

元山發 午前八時半
長箭着 午後二時
長箭發 午後四時
元山着 午後九時半乃至十時(元山)

春川에서 大講演開催

廿八日부터 三日間豫定

春川靑年會에서는 恒常當地靑年들의 敎養을 爲하야 努力하던中 今般同會敎養部에서는 京城에서 來春한 李晄氏를 爲始하야 趙春光 黃[illegible]希女史를 招聘하야 來二十八日(金曜日)부터 三十日까지 連三日間을 繼續하야 每日午後四時半부터 大講座를 開催할터이라는데 場所는 아즉 未定이라하며 時日講士演題等은 如左하다는바 今般講座는 春川에 잇서서 初有인만치 盛況을 豫期하리라는데 聽講은 無料로 公開할터임으로 一般은 多數來聽키를 要望한다더라

△二十八日
맑스學說序論 李晄氏
文學槪論 趙春光氏
婦人解放問題에 對하야 黃[illegible]希女史
△二十九日
史的唯物論槪說 李晄氏
文學思潮史 趙春光氏
同上 黃[illegible]希女史
△三十日
資本制槪論 李晄氏
現代文學의 傾向 趙春光氏
同上 黃[illegible]希女史(春川)

郭山永昌學校 新築中倒壞!

原因은 木手不注意

平北郭山私立永昌學校는 以來多年間 만흔 人材를 養成하야 敎育界에 貢獻이 大하던바 校舍가 狹窄하야 多數生徒를 收容할수업슴으로 當務諸氏의 熱烈한 血誠下에 新建築費約一萬五千圓의 巨額을 辦出하야 半洋制建物七敎室을 建築할 豫定으로 去三月上旬부터 同工事에 着手하야 上樑까지 하얏던바 去二十日下午三時에 突然히 倒壞되엿다는데 其原因은 風雨關係도 잇스려니와 大部分木手의 不注意로 建物을 支撑치 안흔 所以이라는데 損害는 約四百圓以上이라하며 同校委員梁氏는 다시 木材購入을 爲하야 安東縣에 出張中이라하며 同建物倒壞時에 多幸히 百餘工夫는 晝心休工時間에 倒壞되얏슴으로 生命損傷은 無하얏다더라(郭山)

●臨時總會延期又延期 江景靑年會에서는 一般의 操作으로써 會勢의 勃興을 期코저 去十八日臨時總會를 開催코저하엿스나 會員의 出席이 少하야 不得已二十二日로 延期하고 萬般準備하엿던바 同日出席도 亦十七人에 不過하야 規程上開會를 不得하고 會員整理委員을 五選하야 來二十九日以內로 會員을 一一訪問하며 退會與否를 決定하고 二十九日午後八時에는 總會를 江景勞働組合에서 開催하기로 하얏다고(江景)

論山蹴球競技

論山公立普通學校蹴球團에서는 六月十三日(日曜日)에 同校運動場에서 魯城恩津連山江景等地의 少年蹴球團과 共히 春季의 蹴球戰을 行한다는바 매우 盛況을 일우리라더라(江景)

南原人蔘有望

全北南原은 山作水麗로 著名하던바 同郡山東面釜節里有志朴彰烈氏는 嚆矢로 三年前에 開城蔘種을 購入하야 四斗落餘의 田園에 播種設置하엿던바 成績이 頗히 良好할뿐아니라 藥效의 優秀함은 各地産品에 從前無比하다고 試用家의 論評이 籍籍함으로 此地에 蔘圃經營者가 續出한 同時에 前途頗히 有望하다더라(南原)

權園企業組合

元山에서 創立

元山有志趙炳浩 尹重琥 金正鎭 徐泰鎬 李鴻培 尹致純 李洛瑞等諸氏의 發起로 株數一千五百株(一株十圓)의 資本金一萬五千圓으로 權園企業組合發起總會를 去二十三日上里一洞公會堂에서 開하고 創立委員을 左와 如히 選定하엿다하며 該組合의 目的은 大槪 左와 갓다더라

【創立委員】 趙炳浩 尹重琥 徐泰鎬 金正鎭
【目的】 種苗養成 農具改良 生産物奬勵 種子共同購入 農業에 對한 利器發明(元山)

順天勞學授業式

全南順天郡順天面幸町順天勞働學院에서는 夜學生에 對하야 去二十日午後八時第三回修業證授與式을 擧行하는데 男女學生一百五十餘名이 모혀 和氣가 滿堂하엿스며 順天勞働聯合會에서는 同夜學敎員에게 慰勞宴까지 열엇다더라(順天)

安州中學運動 積極進行

三十萬圓의 寄附願提出

一時事業停滯中에 잇든 安州中學期成會는 近間再次活動을 開始하얏다함은 이미 報道한바어니와 지난二十四日同期成會員及有志一同은 黃敏謙氏家에 臨時總會를 開한後 執行委員兼寄附募集委員으로 五人을 選定하고 寄附願書申請人도 前記五人의 名義로 決定하야 寄附金額은 三十萬圓으로 定하고 寄附募集區域도 平安南道一圓으로 定한後 散會하엿다는바 同會에는 多方面의 人士도 多數參席하야 盛況으로 議事를 進行하엿는바 今後期成事業進行에 對하야 一般의 宿望이 多大하다더라(安州)

公州의 暴風雨!

去十九日에

忠南公州郡에서는 去十九日午後三時부터 暴風雨가 大作하야 大小麥에 損害가 不少한中 同郡寺谷面雲谷里에 在한 忠南大本山麻谷寺에서는 二百餘年된 老大檜木이 折倒하야 當寺大王門屋根이 破碎되는 一時大騷動이 되엿스나 多幸히 人命死傷은 無하다하더라(維鳩)

各校生徒旅行

◇光州學生京城見學 全南光州公普學校와 第二普通學校에서는 今般京城에서 開催되는 博覽會를 機會로 하야 來二十六日午後光州驛發車로 上京하리라는바 上京時各新聞社及會社其他官公署를 見學하리라는바 今般新聞社及其他會社官公署等의 見學을 終了한後 同二十八日車로 歸光하리라는바 今日上京할 學生數는 如左하다더라
男百三十餘名 女百名

◇咸興商校生見學 咸興商業學校一年級生徒四十四名은 高橋敎諭引率下에 去二十三日來元築港其他를 見學하고 二十四日商業會議所常務理事長의 元山에 關한 講話를 듯고 同午後四時元山驛發列車로 歸咸하얏다고(元山)

◇汶山公普生修學旅行 汶山公立普通學校四五六學年生徒二百六十名은 校長成島秀吉氏外四人의 訓導引率下에 修學旅行兼博覽會求景次로 二十五日午前六時三十三分車로 上京하엿다가 同日午後四時半列車로 歸校(汶山)

公州郡廳 綠肥採取嚴禁

民情이 매우 嗷嗷

忠南公州郡의 地勢는 峽中임으로 山이 多하고 畓이 少하며 畓의 地質은 沙質畓이 不少하고 山高水冷한 所以로 肥料는 綠肥卽 草木葉이 最適宜함은 勿論이요 萬一 綠肥를 施給치 아니하면 收穫의 減少는 姑捨하고 結實까지 되지 아니함을 不拘하고 千萬意外에 方今折草時期를 當하야 公州郡廳으로부터 綠肥採取를 嚴禁하고 許可치 아니함으로 公州郡一般農民은 大端嗷嗷하다더라(維鳩)

盟休問題로 結局道에 陳情

明道講習校學父兄會에서

果親開島明道講習校盟休事件에 對하야 同校學父兄大會에서는 槪量의 非行에 對하야 累次對議가 잇섯는데 結局은 咸北道廳에 陳情書를 提出키로 可決되엿다더라

啄木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作者氏名明記

活路는 團結에 잇다

◇參於六洲하니 三千里錦繡江山이 羅廡하고 生於一世하니 二千萬白衣民衆이 健强하다 滿腔의 뛰노든 熱血이 아즉未冷하엿고 黑白을 分辨하는 眼睛이 아직未沒하얏거든 何必 生存競爭이 慘烈하니 彼大敵가 彼大하니 何懼乎 民族的으로 團結力이 업서서는 生命의 根源이 枯渴되고 資本勢力이 膨脹하니 個人的으로 自決心이 업서서는 生活의 土臺가 危殆할것이다

◇그럼으로 民族으로서 그 組織的 技能을 失하면 그 國家의 運命은 厄=무엇 그리 凄然이 여일가 九死一生할지라도 萬難을 헤치고 ...

◇爲國의 機關이 되고 爲家의 土臺가 되는 우리 靑年의 ... (秋坡 金東洵)

黃海蹴球 第一回

九團體參加로 盛況中에 終了

旣報=黃海道安岳郡開門面東倉浦東倉修養團及東倉市民의 主催와 時代、東亞、朝鮮三社安岳支局後援으로 第一回黃海蹴球大會를 開催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豫定과 如히 去二十一日부터 競技를 始作하게 되엿는데 大會前日인 二十日에는 雨天임으로 一般選手의 凝慮가 不少하던바 翌二十一日에는 日氣가 淸明하야 選手들은 歡喜中 開幕하야 中小學靑年合九團體가 參加하야 當日下午二時에 樂隊를 先頭로 一般選手가 市內를 一週하고 入場式을 擧行한後 同會副會長李相晋氏의 開會辭와 審判員의 注意事項說明이 잇슨後 三時半부터 競技를 開始하야 第一回抽籤을 하고 時間上關係로 當日은 小學團第一回豫選戰과 靑年團은 一回의 豫選戰이 잇고 散會하엿다가 翌日午前九時半부터 競技를 繼續한바 觀覽客과 各團의 應援隊로 人山人海를 이루엇스며 應援辭과 拍手聲은 山川을 震動케하엿는데 第二回의 抽籤을 行하고 決勝戰한 結果 最後의 月桂冠은 小學團은 安岳公普 靑年團은 東倉A團으로 도라갓스며 下午六時에 優勝旗授與式이 잇슨後 優勝團은 樂隊로 市內를 一週하고 散會하엿는데 大會는 이로써 圓滿히 終了하엿다더라(安岳)

講演開催決議

全北金堤讀書俱樂部에서는 去二十三日同會舘에서 第三回週例會를 金革進君의 司會로 開하고 同氏의 簡單한 經過報告를 마친後 部員의 作文을 修正廻覽할것과 來例會에 講士를 請聘하야 講演會를 開催할것을 決議하엿다는데 修正委員과 講士는 다음과 갓다고 하더라

修正委員=李準吉 鄭容勵
講士=李準吉 趙判五(金堤)

永同勞靑組織

廿三日創立準備

忠北永同에서 勞働靑年會를 組織하기 爲하야 去二十三日에 勞働靑年會創立準備會를 永同靑年會舘內에서 開催하고 數十名의 會員이 出席하야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創立大會時日은 來二十八日午後八時
二、大會場所는 永同靑年會舘

△準備委員
庶務委員 朴太星 宣傳委員 羅...東 申演山 金重甲 韓俊學 尹敬烈 綱領委員 崔鴻得 孫錫珍

蠅驅除宣傳

慶北盈德

盈德警察署에서는 夏節傳染病을 豫防키 爲하야 (파리)驅除를 宣傳한다는데 本月二十五日부터 六月十日까지 第一回로 하야 (파리)驅除한 人에게 等級을 抽籤하야 如左施賞한다고

△等級及賞 一等三圓 二等二圓 三四五等各一圓 六七等各五十錢 八等四十錢 九、十等各三十錢式(盈德)

本報讀者優待

全北任實

任實郡任實面城街里理髮館主 ...氏의 紹介로 本報任實支局發展을 祝賀하기 爲하야 五月二十日부터 三個月間 任實支局管內本報讀者에 對하야 理髮料를 半減하기로 하고 優待券을 支局經由로 發給하엿다더라(任實)

元山灣內漁獲

元山灣內에 南三日內로 「넙치」「우레기」等의 漁獲高는 一時增加하야 六個所의 漁網은 一個所平均二百圓의 收穫이 업섯는데 이것은 風雨의 다힘이라하며 安邊郡麗島에서는 二十三日에 約一千五六百尾를 漁獲하엿는데 例年에 업는 大漁이라하야 一般이 매우 注意하는 中이고 魚物의 時勢는 송어 一尾三十錢內外 넙치 一尾七十錢乃至八十錢 우레기 一尾平均十五錢이라더라(元山)

群山內外米在庫

群山二十一日現在의 玄米在庫는 十八日보다 六千九百八叺의 增加인데 其細別은 如左하다고

【玄米部】 一九、六四二叺 朝銀支店 六二、一七一叺 十八支店 四〇〇叺 組川倉庫 二〇〇〇叺 殖銀支店 四、六三五叺 鮮銀支店 六、三三七叺 東拓倉庫 三一七四叺 同會社 一、七五二叺 朝日精米 二、三八二叺 韓一支店 ▲合計一三〇、二〇四叺 ▲十八日現在一二三、二九六叺 ▲增加六、九〇八叺

【外米部】 一三、五七袋 朝日精米 七六九〇 韓一支店 五、七五〇〇 殖銀支店 二二、九八〇 十八銀支店 九五〇袋 細川倉庫 一八七五六〇 商銀支店 三、五〇〇 信託會社 ▲合計 ▲十八日現在六、二〇三袋 ▲減少九、五

【白米部】 一、二五〇叺 鮮銀支店 二〇叺 信託會社 四七五叺 韓一支店 五八〇叺 朝日精米 ▲合計二、三二五叺(群山)

◇地方經濟◇ 全北蠶繭

第一回收繭豫想 約一萬二千餘石

全北道內今年度春蠶第一回收繭豫想은 掃立枚數約三萬〇六百餘枚로 收繭高約一萬二千餘石인바 此를 前年度의 掃立枚數二萬七千餘枚 實收高約一萬一千石에 比하면 枚數로 三千六百餘枚가 增加되엿스며 收繭은 約千餘石이 增加되엿스나 現在掃立狀況을 미루어보면 實收는 豫想以外의 增收를 見하리라고 한다더라(全州)

全州郡	二、〇三五枚
鎭安郡	二、〇三八
錦山郡	三四、四八
茂朱郡	二、三五五
長水郡	三、六二二
任實郡	三、八六七
南原郡	三、三三五
淳昌郡	二、〇二〇
井邑郡	二、〇四七
高敞郡	一、七八五
扶安郡	一、〇〇〇
金堤郡	一、〇五〇
沃溝郡	九二四
益山郡	一、一〇二
合計	三〇、六三三

●女性覺醒委員會 咸南咸興女性覺醒會에서는 第二回執行委員會를 去二十三日咸興府李氏家에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고
一、會館問題에 關한 件
二、會費納入에 關한 件
三、講座開催에 關한 件(咸興)

●咸城女靑委員會 咸南咸城女子靑年會에서는 第二回執行委員會를 去二十二日東外洞李爽熙氏家에서 開하고 左記諸項을 決議하엿다고
△決議
一、敎養問題 自體敎養 對外敎養
二、宣傳問題 出版言論
三、一般運動에 關한 件
△執行委員
庶務部 千斗能 敎養部 元必年 調查部 金又喜正
(一)本會의 月例會를 六月二日에 開할 것

●黃谷親睦總會 咸南端川郡水下面黃谷里親睦會에서는 五月五日第二回定期總會를 開催하엿는데 臨時會長徐昌成君의 司會로 諸般報告와 左記各項의 決議가 잇섯다고
△任員
會長 朴永燮 副會長 李鳳翼 書記 金昌協 幹事 徐昌成 趙基奕 姜春國 總務 徐成俊
△決議
一、每土曜日에는 講演을 開催할 일
二、夜學에 힘을 다할 일
三、期會를 맛아 金錢을 貯蓄할 일(端川)

◇寸鐵◇

【通川】 通川邑內有志로 組織된 ... 지난二十二日에 總會를 開하얏는데 ...

◇

【甕津】 ...

◇訂正 本報 二千三十六號(五月十九日) 第一版第二面 ... 記事中 ... 訂正함(奉天)

社告

今般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總務兼記者 金雨湜
記者 金鳳翼
記者 呂南壽
顧問 崔周永

朝鮮日報間島支局 白

本報五月十四日朝刊第一面社告欄中 本支局週南駐在記者沈熊鎬은 河龍鎭의 誤植이기 玆에 正訂함

朝鮮日報三千浦支局 白

本報五月七日朝刊第一面社告欄中 本支局記者 金炳浩는 金柄의 誤植이기 玆에 正訂함

朝鮮日報群山支局 白

今般本支局記者兼會計金永涉氏는 今後로 雙橋奴技術所에 駐在하야 記者崔成淑氏와 同히 事務를 處理케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任實支局 白

今般本支局에서 事務室을 新築하고 業務를 擴張키 爲하야 左와 如히 局員을 增用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記者 裵馨來
記者兼集金 李秉錫
記者 金箕亭
顧問 李相淳
顧問 金基甲

朝鮮日報井邑支局 白

今般本支局顧問梁長柱朴鳳儀尹津泰尹敏李錫雨金大浩記者朴戶漢丁基復金永穆李相文諸氏는 事情에 依하야 辭任하엿고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栗山面駐在記者 李尙昊

朝鮮日報羅州支局 白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Wednesday, May, 26th, 1926.

WORK OF LIFE-BOAT INSTITUTON

Lord Forster's Appeal for Support

II

The lifeboats were manned by some 4,000 men, volunteers from the fishing population living on our shores, and guarded a coast line of 5,000 miles with extraordinary efficiency and success. The institution was able to carry out its great work at a cost of less than £250 000 a year, which included all capital expenditure such as the construction of slipways, the provision of new motor-lifeboats, etc.

Its total record of lives saved, reaching nearly 60,500, was so remarkable that people had come to take it for granted and failed to realize that it was a voluntary society administered by a voluntary committee with a small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taff, and assisted by hundreds of local committees and ladies' guilds all over the country. The work was more than national in its scope and influence. It had assisted the Oversea Dominions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in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and technical aspects of the lifeboat services. Nevertheless, it had not received the full measure of financial support which it deserved. In order to meet last year's expenditure nearly £30,000 had to be taken from legacies and special purposes trust funds to cover the deficit on the year's income. Our great mercantile community, whose strength and prosperity depended so largely on our oversea trade, failed sufficiently to recognize the claims of the institution to adequate support.

英文欄

救命艇會의事業 (二)

上富良野에만 死傷者百餘名

류황산폭발로참해가심하야 창황일대는수라장이되엇다

札幌十勝岳爆發續報

석간속보=일본 십승악류황산(十勝岳硫黃山)의폭발로부량야(富良野)일대가전멸상태에빠젓다는급보를밧고 찰황(札幌)에서는소방대와재향군인단파및청년단이 우원모자이십오일 오전네시경에 현장에 급행하얏는바 피해가그중에 심한 상부량야는뭄이쌔길이상이나중수되엿스며 이십오일아츰까지판명된사상자는백여명이나 되며 도괴가옥도 오십여호에 달하얏다는데 부량천에는다수한시톄가표류하더라 (찰황뎐보)

線路의避難民으로 救護車運轉도不能

후십한시오분에오십남(五十嵐)보선사무소장(保線事務所長)이하이백여명의 공부(工夫)가 화차이량(輛)과 구원차오량에 침목공석(筵)목재동을가득히실고 현장으로갓스나 이십오일 오전한시반에간별(間別)부근에서선로상에 피난민이만허서 렬차는사람에막히어운뎐불능이되엿다더라(욱천뎐보)

旭川市에서 救助車運轉 구조품을실코

욱천시(旭川市)에서는피난민을구조하기위하야 이십오일 아츰열한시 오십분에 림시렬차(臨時列車)를운뎐하야 『보툰』수십쳐과의사(醫師)간호부(看護婦)동을실코 리재민에 잇는곳으로향하야떠낫다 더라

廿五日午後까지發見된 死者는五十餘名

지금까지에발견된시톄는 오십여명이나또속출될듯 北海道長官發表

일본욱천(旭川)에서이십사일오 이십오일 오후세시 사십오분에 북해도(北海道)장관(長官)으로부터 내무성(內務省)에 도착한뎐보에의하면 이십사일 오후네시반경에 십승악(十勝岳)폭발로인하야 홍수가일시에 범람하기때문에 상부량야촌(上富良野村)은 큰홍수에 싸히어서 유실가옥이 략이백호 죽은시톄는현재발견된것이 오십여명이나된다하며 수뎐(水田)의 피해도칠백뎡보나된다는대 아즉까지상부량야(上富良野)부근은해일한것과가티유실가옥과인축의사상이상당히속출할모양이라더라

裕陵에小轝陪進

순명황후재궁을봉출하야 침뎐에이봉하야모시라고

이십륙일오전록시에유릉(裕陵)순명황후(純明皇后)재궁(梓宮)을 봉출(奉出)하야즉시침뎐(寢殿)에 옮겨 모신후성빈(成殯)하는의식을 봉행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날재궁을 옮겨모시기에 상용코자 그동안덕수궁(德壽宮)내에서제작을급급히하던소여(小轝)를이십사일로써완전히 준공한후 이십오일오전중에유릉으로배진하얏더라

奉天日警署에 共産黨員檢擧

일중군사비밀디도를어드랴다가검거되어

봉텬(奉天)에잇는일본관헌은수일전에 돌연히 봉텬미술전문학교(奉天美術專門學校)학생류계광(劉繼光)(二二)을검거하야엄중한취됴를 계속중 이라는바 류계광은 광동정부선뎐부(廣東政府宣傳部)에서파견된 남만주젼회선뎐부원으로 이미 광동공산당(廣東共産黨)으로부터바든운동비로서 오십칠명의 학생(십륙세이상이십세까지)을모집하고 또다시남만주 텰도연선에서당원을모집하던중에데포된것이라는데 그들은 비밀리에서만텰의 렬차에탑승하고 일중(日中)량국의 군사비밀디도를훔쳐가지고 로농로국(勞農露

無罪냐重罪이냐 疑問의放火狂美人

경성복심에서문데되여잇는 放火犯安씻녀의犯罪裏面

작일 본보석간에『원심에서는무죄판결 복심에서는 칠년구형』이라는 데목아래에방화범(放火犯)으로 심리를맛는 안(安)씻녀라는 당년스물여섯살된 젊은녀자의 공판기사가 보도되얏섯다 그런데이사건은 원심에서무죄판결을바든 피고에대하야 복심검사가 칠년징역을 구형하엿다는점으로도심상치안은사건인듯하엿섯는데 과연 그리면에는큰의문에 싸혀잇서 재판장도그범행의유무를 가리지못할 어려운처디에잇는사실이잇다

× ×

방화범인 으로데포되기는원주경찰서경관에게데포되엿는데그경관은 즉시안씻녀의범행사실을아래와가티보고하엿다 『안씻녀는 삼범(三犯)이잇스니음벽(淫癖)도벽(盜癖)방화벽(放火癖)이그것이다 그리하야그녀자는 그동리로 도라다니면서 방중이면불을질러 현재그동리—즉원주군원주면 하동리(原州面下洞里)에서대정십삼년십이월이십칠일 이래 회재를당한집이 한천석(韓千石)류병호(劉丙浩)리병선(李炳善)최영환(崔永煥)리종취(李鍾取)박금달(朴今達)등오륙호가넘어 지금도그동리에서는 원인 모르는

독개비불 이라고소문이놉흐나 사실인즉 이안씻녀라는녀자가 대담하게행한 범죄이라 이를엇지용서하랴 커벌코저 데포한것 이라』

× ×

함이데포한경찰관의관찰이엇다 그리하야 안씻녀는 원주경찰의엄중한취됴를밧고원주검사지청의 취됴를바든후 서울로올려와서는경성디방법원검사국에서또취됴를밧고 즉시 예심(豫審)에부쳐두고등촌(藤村)예심판사의취됴까지바든후 올데갈데업는방화범인으로 인뎡되여 경성디방법원공판에붓게되여그데일회공판이 열리게되엿다 그동안 즉경찰서에 잡혀서부터 예심이종결되기까지사이에—

안씻녀는 경관의취됴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엿는가 그는아려케말한것이엇다

『불을 그러케여러곳에질른것이확실히내가한짓이다그러나나는내본심으로그러케불을질른것이아니라 그러한짓을할째마다먼저내머리가띵하여지며 젊은사나이와 젊은계집 두명의독개비가눈압헤 보이면서 우리가려가서 불작란하자! 하면서꾀이면은 자긔는구경이에 쎄커정신업시 그소복한 독개비를또차가서어느집에든지 불을 노코서는불질이 확부터사람들이 써들게되면그째에야비로소독개비에게 홀린줄을 깨닷고자긔도 불을 쓰라고 노력하게된다 불질는것은 확실히내가한것이다』고처음부터곳거지이가티말하엿다

× ×

이리하야 그데일회공판이 경성디방법원에서궁본(宮本)재판장의심리하에열리엇다 재판장은아모의심업시『네가이러이러한일을하엿지』하고물엇섯다、하엿더니의외에 안씻녀는 펄쩍뛰면서『그게무슨소리입닛가 나는불질은 일업습니다 나는 죽어도내죄라는것을 알수업서요』하고자긔의무죄한것을 주장하엿다그째에

극력변명 하엿다그째에재판장이 뭇기를

『너는경찰서에서부터 여긔오기까지 네가 한일이라하면서그독가비 형용까지 말하지아니하엿느냐 소복을입고 머리를깍고 다리아래는 희미하야 보이지안는 독개비에게 쓸려 그리하엿다고—』

그러나 안씻녀는 못못내머리를 가로흔들면서『내가 그러케말한것은 경찰서에서 그러케말하면 내여보내준다기에 그러케 말하엿고 또검사국과 예심에서그러케말한것도 경찰서에서 순사들이위협하기를 네가 지금이러케말하엿스면 검사국에가서도 그러케 말하여야된다하기에 그러케

거즛자백 하여나려온것이지 내가정말그런짓을한것은아닙니다』하엿다

× ×

궁본재판장은 판결당일에 이르러 그녀자에게 무죄(無罪)판결을 언도하엿다 그리유로는아조간단하엿다 즉그녀자의 범죄사실을 인뎡할만한 아모증거가업다는것이엇다 만약이째에 검사만 그판결에 동의하엿더면그녀자는 청텬백일의 몸이되여출옥하엿슬것이다 그러나 이사실을당임하엿든복뎐(福田)검사는그판결은 부당하기 짝이업는판결이라고 즉시 경성복심법원에

불복공소 하야안씻녀는 중죄에 처함에 상당하다고극력주장하엿다

× ×

사건은 복심으로 넘어가서지난이십사일 오전에 그공판이개뎡되엿섯다 피고안씻녀는강경히자긔의 애매무죄함을 주장하엿다 그러나 이번사건의 증인(證人)으로온 여러사람들중에서 안씻녀를살위하야 박공희(朴公喜) 신천학(新川鶴) 안한현(安漢鉉) 리긍사(李兢渡) 등 여러사람은 그녀자가불질르는것을 목도하엿노라고 진술하엿고 일변회재를당한 집주인들은 그반대로 그녀자가우리들집에 불질를까닭은

조곰도업 다고경찰서료사시부터 대답하엿다 그러나복심의 당임검사립정(笠井)검사는 증거가확실한 방화범이라하야 징역칠년에처함이 상당하다고준렬한 구형을하엿다

× ×

이리하야의문의방화범안씻녀의공소공판은드듸여심리되여오는삼십일에 데칠호법뎡에서 그녀자에게한 판결이언도되게되엿다 무죄이냐? 그러치아니하면 여러해징역이냐? 이는그판결날이 아니면 몰을일이어니와 엇더튼재판관이 이사건을 엇더케인뎡할것이냐하는것이 법조계(法曹界)의큰문데꺼리가 되여잇는것은사실이다

錢)에여공할 계책이엇다더라 (모처뎐보)

不遠間建築될 東京青年會館

긔디가곳결뎡될듯

동경(東京)에 잇는조선인긔독교청년회관(基督敎青年會館)은 삼년전진재로인하야 소실되얏슴으로 그후다시 건축하고저 동회총무최승만(崔承萬)씨가조선에도라와서 건축비를 구하기에 노력한일까지 잇섯든바 얼마전에미국 긔독교 청년회로부터 오만원(일화약십만원)을데공하기로 승락한일이잇서서 경성중앙긔독교청년회 신흥우(申興雨)구자옥(具滋玉)『신라만』씨가그동안동경에건너가서 긔디(基地)교섭에 노력하엿스나 여의치못하야 하등의락착을엇지못하고 일젼에 귀국하얏섯는데 불원간긔디가 결뎡되는동시에 건축공사에 착수하게되리라더라

眞犯은누구냐? 龍岡의殺人事件

아비가죽인것이확실하나 아들은또제가죽엿노라고

긔보=평남룡강군다미면오화리(平南龍岡郡多美面五花里)사백륙십일번디 곡물상(穀物商)정원진(鄭元鎭)(三三)이란자는 동면오정리(梧井里)칠백칠십사번디박치섭(朴致涉)(四五)이란자와그의장남박승조(朴承祚)(二三)는취됴를마치고 지난이십사일에 일건서류와 아홉가지의 증거품과가티 진남포검사국중촌(中村)검사의손으로넘기엿는데 이케그범죄사실을듯건대 박치섭은 지난사월이십오일에 전긔정원진의자본을가지고

술장사를 경영하는그동리한창준(韓昌俊)이란사람으로부터 자긔의채무금약 일백구십원에대한지불명령(支拂命令)을바든것과 또그밧게 묵어오든 사소한감정에서 한창준의 자본주되는 정원진을 미워하게되엿든바 마츰자긔(박치섭)가 전긔채무금을 물어주기위하야 황주송림면마산리(黃州松林面馬山里)정승린(鄭昇麟)이란 재산가를차저가서 련장을팔고자 교섭하고잇슴을지음에 전긔 정원진이가 그곳에벼(籾)를 만히사노코 오월칠일에 그벼금을치르기로된사정을 눈치채이고 정원진이가 거액의금전을가지고 잇슴을 짐작하고긔회를엿보아 정원진을살해하야 원수를갑흔뒤에 금품을쌔아서빗을물기로결심하고뒤늦밤고잇든차에 마츰정원진이가 지난륙일에 오정리정택근(鄭澤根)이란사람을차자가서 돈을 바더가지고집으로도라가는길목을지키고잇섯다가 그날밤여덟시 사눈경에 쏫밧재(花田峴)란 산골작이에서 민어(民魚)잡는 락시줄을가지고죽인뒤에금품을쐬집어내고잇슬째에 박의장남승조는 그부친을차저나오다가 그곳에서맛나서사태가그가티된것을보고

뒤를념려 하야 곳그부친(박치섭)이와한가지 그시톄를 오화리(五花里) 도선장(渡船場)에서 약오백미돌 가량되는곳으로 옴겨다가 승조는망을보게하고치섭은의복(衣服)을버슨뒤에 시톄를지고 고요한갈밧(蘆田)을 허치고 드러가서깁히대동강(大同江)물속에장사하엿든것이라는데 물뎍증거(物的證據)와그가족들의증언에의하야 이상과가티 박치섭이가살해한것으로 사실이 판명되엿스나 박치섭은 전긔와가튼 사실을부인할뿐아니라 그의 아들승조도자긔의 부친은 하등의관계가업고 자긔가 전부 그가티하엿노라고 주장고백하엿다는데 이에대하야는 사법당국에서도 아즉확호한 판단을 나리지못하고그진상을신중히 됴사하는중이라더라 (진남포)

兩人組의穀物盜

지난 이십일밤에 양양읍서문리(襄陽邑西門里)최찬종(崔燦鍾)씨의집에 절도가 침입하야 백미열두말을 훔처갓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듯건데 그날비가옴으로 일즉이 잠을자고 아츰에 그집녀주인이 나와본즉 바자문이열렷슴으로 이상한 생각이나서 뒤란으로 드러갓더니 쌀이녕에떠러젓슴으로 더욱의심이 나서 광문을열어본즉 그와가티 쌀이업서젓다는데 범인은 아즉알수업스나 발자국에 의하면 두사람이들어와서 쌀을지고 간것으로판명된다더라(양양)

安承滿氏渡米

류학하고자

일즉이 개성사립 송도고등보통학교 (開城私立松都高等普通學校)와동경명치학원 (東京明治學院)을졸업하고 원산 배성학교(元山培誠學校)에서교편을잡고잇든 안승만(安承滿)(三二)씨는 상업을연구코자 오월이십칠일오후 일곱시차로 미국(米國)『베지니야』에잇는고로아노크대학을향하야 떠나리라더라

◇사진은안승만씨

平南察警部 非常活動開始

광동공산당원잠입으로 돌연히활동을개시하여

요사이평안남도경찰부에서는눈코뜰사이가업시비상선을느리고활동을 개시하는중이라는데 이케그내용을 듯건대 중국광동(廣東)으로부터 공산당원 박괴화(朴葵華) 리창선(李昌善)두명이 이일전부터 평안남도 디방에나라나 공산선뎐에 로력한다는정보를듯고 그와가티 데포에노력중이라더라(평양뎐보)

上海青年도 潛入! 평안남도에

상해(上海)로부터고덕원(高德元)이란청년이평안남도에드러와서군자금을모집하는중이라하야 평안남도경찰부에서는방금극력활동중이라더라(평양뎐화)

一家三名을 慘殺後放火

이십오일 오전두시경에 일본천엽현안방군뎐원촌(千葉縣安房郡田原村)에거주하는 지화뎐암삼(志和田岩三)의집에서불이일어나서 동가옥이 전소된후 전긔암삼과 그의안해 송자(松子)와밋장남방길(房吉)의 참살된시톄가 나타낫슴으로 즉시동디검사국에서는 곳활동을 개시하야 됴사하엿든바 엇던자가 전긔세명을 죽인후 자긔범행의 흔적을감추기위하야 그와가티 방화하고다라난듯하다더라(천엽)

家庭不和로 少婦飮毒自殺

죽을째에무엇을먹엇나

전북김뎨군부량면옥뎡리(全北金堤郡扶梁面玉亭里)김현록(金鉉錄)(二八)의 안해 오성녀(吳姓女)라는 당년십구세의쏫가튼녀자는 지난십구일오전한시경에 양재물을마시고 몹시고통하는것을집안사람에게발각되야 즉시김뎨박청의원(金堤朴淸醫院)에 입원식혀응급치료를 하엿스나 아모효과를 엇지못하고 그이튼날인이십일오후한시에그만무참히 죽어바렷다는데 아즉그원인은자세히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긔 오성녀는전주(全州)출생으로일즉이 량친을일코자긔삼촌되는 동군우림면 삼산리(雨林面三山里)오효영(吳孝泳)에게 길리여 그가 십칠세되든재작년겨울에 전긔 김현록에게싀집을간후 싀모(媤母)의 학대로 이래무미건조(無味乾燥)한생활을하여오든중 지난십구일아츰에는 부부가약간의 싸홈을한[illegible] 전긔와 가티음독자살을한것이라는데

一般이排斥하는者를 島當局은無條件으로擁護

『일반이반대하는어업조합은 긔어히해제하고야말것이다』

◇濟州楸子島騷擾事件의眞相 (二)

경비선에서는 공포를 탕하야 총질하고 뛰여올으려는자는 곤봉으로 무수히란타하며 떠나고말엇다한다 이에 일부의경관은추자도에 주둔하야 도민을 모하노코 공동판매를 반대하는자는 엄중히 처벌한다고위협까지하얏스나 도민은 어대까지든지 자긔들의 목뎍을 이루기위하야 싸호리라고하며 이번사건의 발생한것은 어업조합에 대한불평뿐이아니라

=전긔= 김상진이란자가봉원에 면장(面長)으로 취직한다 함으로 이에대한 반대운동도 포함되엿다는데 이에 그내막을듯건대 원래김상진은 자긔의권력을자랑하야횡폭한행동이만흠으로 도민일반에게신망이업다고한다 그러나비밀리에 면장운동(面長運動)을 격렬히하야 제주도사에게 다소신임을엇고 내낙(內諾)까지이잇섯다는데 제주도사는

=지금= 추자면장김승배(金承培)를 불러다가 『그대는 직무에 나태함으로 사직하는것이조켓다』고권유함으로 김승배는『명령이면할수업스나 리유가 넘우서지아니한다』하엿더니『그대는 사직하야 어업조합장이되면 일주일에 한번만 출근하야도 조치아니한가? 그대신에 김상진을 면장으로하는것이 조켓다』고하얏다고 한다 『그러면엇더한

=리유= 로사직원을제출하느냐』고물엇더니『병으로못한다고 진단서(診斷書)를 첨부하라』고까지하얏다고한다 그후 추자면에가서 사직원을 제출하엿더니 제주도령(濟州島廳)에서 진단서를만들어서 첨부하얏다는말도잇다 이번사건은 그내용이 복잡하고 이상한뎜이만타고하는데 이에대하야 모씨는말하되

=어업= 조합이란것이우리에게리익을 주지못하고 손해를 주는이상 당연히 해톄를하여야 할것이며 어업조합의 간부와 김상진과 권력을 쥐하야일반의여론을 무시하는 행동을감행할은 도저히 용서할수 업는사실이외다 도민이 심허하는 공동판매를 긔어히 하려는그자들의 심리도 이상하려니와 도민일반이 져렬히 반대하는김상진을무조건으로

=옹호= 하고면장에서 지추천하려는 당국자의 행동도 아름답지못하다고할수밧게업습니다 아무려튼 우리는힘을합하야 어업조합의 해톄를반대하는동시에 김상진가튼자는당연히사직하도록 운동하겟습니다』고하더라(끗)

死亡者의印章을 偽造하야詐欺

도구경도못하고발각

황해도은률군 이도면가당리(黃海道殷栗郡二道面柯堂里)에본적을둔 김치복(金致福)(三〇)이란자와 동군동면 생팔리(生八里)에사는 박룡범(朴龍範)(三二)이란자는 방금안악경찰서(安岳警察署)에인치되여 사문서급인장위조사긔취재(私文書及印章僞造詐欺取財)등의 죄명으로엄중한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 이케그자세한내용을탐지한바에의하면 전긔두사람이 지난음삼월이십륙일에 무슨볼일이잇서 안악면판칠리(安岳面板七里) 리화식(李和植)의집에와서잇든바 자긔친구인 안악면룡석리(安岳面龍石里)한응두(韓應斗)가 지난음삼월이십오일에죽엇다는말을듯고 김치복은 한응두가 약일천오백여원의 재산을가지고잇슴을탐내여 한응두가사망한것을긔회로 가티왓든박룡범과 공모하고 음삼월이십칠일에 안악읍에들어와서 인판조각업(印版彫刻業)하는박찬영(朴燦泳)에게 사망자 한응두의 인장을위조하야가지고 그이튼날인이십팔일 자긔집으로도라가서 한응두가 대정십삼년 음십월십일에 김치복에게 돈삼백칠십원을 차용한것가티 차용증서를 위조하야 그한응두가 사망한것을 알지못하는체 하고 한응두에게 채금반환의 독촉서신을 발하고 음사월오일에 김치복과 박룡범 두명이 안악에와서 한응두의부친한영준(韓永俊)을차자가서 당신의아들이 생전에 우리에게차용한것이 잇스니 반환하라고 함으로 차용증서를보고 자긔아들이 사용하든 인장이 아님으로 이상히녀기여 몃칠만 기다리라고하고 각방면으로 탐지하고잇든중 안악경찰서에서 이것을알고 전긔 김치복박룡범을 검거하야취됴하는중이라더라(안악)

本町에잡힌大賊

검사국에송치해

본적을경긔도 수원군 동형면초장리(水原郡同荊面蕉長里)에두고 주소미정한 김공삼(金公三)(三〇)이란자는 근래에 드문큰도적으로서 경성시내에서만 십륙건의 절도와일건의 사긔사건으로 피해금액은 수천원에달하얏다는바 시내본뎡경찰서에 데포되야 그동안취됴를밧다가 지난이십삼일에 일건서류와함께 검사국으로 넘어갓다더라

逃亡하든娼妓 도중에서잡혀

옹긔(雄基)장춘관(長春館)에잇는림군지(林君枝)이라는 창기는 지난십팔일새벽에정부와 손을마조잡고 료리집을버서나와 도망하다가 옹긔에서약칠십여리나되는 고읍동(古邑洞)주재소원의손에 붓잡혀 새의몸을면치못하고 말엇는바 이케그도망하던 원인을알아보면 그는 자긔의일신을 얽거맨채금은 오백원이넘어 륙백원이갓가워잇스되 그를벗고 나히삼십이갓가워가나 그를치자주는 사람은적고 태산가튼 채금은 버서날길이 막연하야 항상 우수사려로보내든중 마츰 옹긔동김홍제(金洪濟)(二二)라는 사람과 정이들어 서로죽자살자하고지내엿는데 림군지의생각에는 자긔가지금질머진 채금(債金)을다벗기는 세월이망연하고 나히는점점더먹게되야 장래라도 사랑하는 전긔김홍제와 살아볼길이 아득함으로 여러가지로생각다못하야 최후의결심으로 자긔의약간 의복을팔아 삼십칠원의로비를 만들어가지고 지난십팔일새벽에 정부김홍제와 함께마차를타고 음동까지가서 두만강을건느려다가 그곳 주재소순사의눈에 행색이이상스럽게 뵈여취됴를 밧다가 마츰내데포되고만것이라더라(웅긔)

罷業郵局員 六個條를提出

각사회단톄에서극력후원

장성우편국원(長城郵便局員)동맹파업의형세는 점점 험하야가며 이십이일오후에는 경찰서장을방문하야 십개조(十個條)중에 형사문뎨에관한 몃가지를뎨탁하기로하얏스며 다시 여섯가지조건을요구하야 소장에게데출하얏는데 아즉은아모말이업스며 장성로동조합이하 모든각사회단톄에서열렬히후원하며 소장이 갈려가기까지는 어디까지라도싸호아볼모양이라하며 여섯가지요구조건은 아래와 갓다더라

一、일년에한번식은긔어히월급을올려줄일
二、집배인의피복(被服)은일년에삼착(三着)식지급(支給)할일
三、근면수당금은긔어히동지문과돌리지안케지불할일
四、대정십사년도 년말 상여금(집배인분)사십원오십전가운데서지불치안흔것이십원을지불할일
五、규약저금은매월봉급에서갈
六、먼저사무원(사월십삼일파업당시에퇴직한사람) 백백동(白百鑑)군을다시쓰게할일 (장성)

自動車에火災

원인은담배불인듯

량산자동차조합 언양영업소(梁山自動車組合彦陽營業所)에서는 지난십팔일오후 한시이십분에 데일륙삼호(第一六三號)의자동차에 불이부터 맹렬한화염은화려하든 모든장식을 다태워버리고 쇠스텡이만남직하게남겨두엇다는데 손해가 불소하다하며 자동차는방금 수선하는중이라는데 원인은마츰 그날이언양장날(市場日)임으로 시가에는사람들이오 자동차부내외에도 사람의왕래가 복잡하든바 누구(某)의담배불이휘발유(揮發油)에써러저서그와가티된것이라더라(언양)

陵行道路修繕

二千五百名人夫로 대여모실길이불완전하야 리왕직에서방금대수선중

리왕직례식과(禮式課)와영선계(營繕係)에서는 오는륙월십일의 인산준비에 분망중인바 금곡(金谷)의 어릉공사와 유릉(裕陵)의 계릉공사(啓陵工事)에착진행하는 일방으로 금곡까지의도로수선을 착수하야 이천오백명의 인부를사역하야 도로의고저과구배(勾配)를수리하는중인바 동대문부근에잇는 경성뎐긔회사뎐차창고 압헤잇는교량(橋梁)도현재의 이간반의 폭으로는 대여가 통과치못하겟슴으로 방금리왕직에서는 텰도국으로부터침목(枕木)칠백본과『레ー루』빠탈십개를세내여 서립시로사간반을넓게하야 공사는경성 부령 영선계(營繕係)에위탁하엿는데 이삼일중에 완성되리라더라

兩支局員釋放

원인은주의선뎐혐의

경남하동군(河東郡)청년회간부두명을 돌연히 검거하엿다 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시대지국장 김재영(金在榮)씨와동아지국장 김대근(金大根)씨는로농로서아(勞農露西亞)로부터 온수해구제금을 각면에분배하고 왓든바 분배당시에 공산주의(共産主義)를 선뎐하엿다는 혐의로 십여일동안취됴를바든 결과지난 이십삼일에 무사히 석방되엿다더라

蟾津江上에서 商船一隻顚覆

五名中三名은慘死 원인은부주의라고

경남하동섬진강(河東蟾津江)상류인구례군 간문면 하천리(求禮郡艮文面荷川里) 부근에서지난이십이일 오후네시경에 상선한척이 돌연히 전복되엿다는데 이케그원인을 듯건대 하천리에사는리화춘(李化春)(四五)최운서(崔雲西)(四八)배백옥(裵白玉)(三二)외두사람은화개(花開)시장에갓다가 도라오는길에 약간의 홍수는잇섯스나 풍랑도업섯는데 돌연히 전복되며 전긔세사람은 무참히 죽고그외의두사람은근근히 생명에는 별관계업다하며 리화춘의 시톄는발견하엿스나 두사람의 시톄는아즉발견치못하엿다하며 단순히 부주의한관계인듯하다더라(하동)

長湍交通復舊

개성고려자동차부에서

장단(長湍) 읍내에 본부를두고 장단역과 고랑포(高浪浦)와구화장을 통행하든 자동차는당국의통행금지를 당하얏다 함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 당디 교통상 불소한 영향이잇슴으로 당디경찰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야 개성고려자동차부(開城高麗自動車部)와 교섭한결과 동자동차부에서 림시로 출장하야 장단역과 고랑포간을 통행하얏다는데 장단의 교통은복구되엿다더라(장단)

烏山農補校 一學年生盟休

그원인은교장배척

경긔도수원군오산공립농업보습학교(京畿道水原郡烏山公立農業補習學校) 이학년생도일동십오명은동교뎐중교장(田中校長)에대한 불평과 승격을요구하는 진정서(陳情書)를 경긔도학무과장(京畿道學務課長) 수원군수(水原郡守) 동교장뎐중삼랑(同校長田中三郎) 동교후원회장 한필호(同校後援會長韓弼鎬)씨에게 각각제출하고 지난이십사일부터 일제히 동맹휴학을하엿다는데 진정서의됴건은 다음과갓다한다

一、田中校長의資格問題에關한件(綱目略)
二、田中校長의不正한事件(綱目略)
三、李某教授及學年延長의件(綱目略)

동의의미로이상요구를들어주지 안는때에는 생도일동은 몰명퇴학하겟다 고하엿다더라(오산)

木船으로潛入

원산을거처서경성에잠입 元山署員上京活動

원산경찰서 고등계(元山署高等係)홍경부(洪警部)는 이십오일 아츰여섯시 이십분경성행렬차(京城行列車)로 급히경성에출장하야 경긔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의응원을바더가지고 방금비밀리에 대활동중이라는데 물론그내용은 절대비밀에부처알수업스나 대개 탐문한바에의하면 이번 인산을 긔회로모모계획에 착수코자 로령(露領)방면으로부터 수상한 청년두명이 조선목선을 타고드러와서 원산에서 한숙하야 즉시경성으로 잠입한형적이잇슴으로 그와가티 급거출장하야 엄중배색하는것이라더라

五錢어치의 外上술짜닭에

니가부러지도록싸홈

경남사천(泗川)군읍내 서인동(眞仁洞)삼십칠번디음식뎜영업 리복순(李福順)(二〇)은 몽리 최공치(崔孝致)(四〇)와린접하야 살든중 지난이십일일에 리복순은 최몽치의집에서 탁주오전어치를 외상으로달라하얏더니 최몽치는 외상술은팔지 아니한다고 거절한바 리복순은 전일에빌어주엇든긔구를가저가는바이로인하야 언쟁을하다가 일시격투를하얏는데 리복순은 압편큰니한개가빠지고 엽니두개가 흔들리는고로 상해고소를 데출하얏다고(사천)

清河에火災

경북 영일군청하면미남리(慶北迎日郡淸河面美南里) 정태식(鄭台植)씨의집에서는 지난이십일일밤열시경에 불이일어나서 그집행랑채를 전소하고 불길이점점맹렬하야가 려두엇든솔갑이(松葉)일천여단을 다태워바리엿는데 때마츰서풍이불고 가는비가부실부실 나리는중에 청하소방대의 민활한활동으로 약다섯시간만에 진화되엿스나 손해는삼백원가량이오 원인은 소죽쑤는 부억에서 불이부러나온것이라더라(청하)

告訴의激增과

촌민의악화하는경향

근래웅긔경찰서(雄基警察署)에는 여러가지 고소장(告訴狀)이 빈번히 드러와서 경찰당국자의 골머리를 알케한다는바 지난달사건부(事件簿)의 통계를 본다할지라도 총범죄건수 구십구건중에 삼십여건의고소장 이라하며 또한그고소장의 내용을보면 대개가구타상해(毆打傷害)오그다음 사긔횡령(詐欺橫領) 가튼것은 극히소수이바 그고소의내용이대개가 성립되지안는 것인데 이러한현상을 인민의권리주장으로보면 그다지 조치안흔일도아니겟지만은 그보다도 대개가 사소한개인뎍 감정으로 시법뎡에 호소하려는 가장렬능한행동을가진자가 만흐며 그다음은 혹엇더한일부의 선동(煽動)으로말미암아 이러한행동에 나오는자도 적지안타는데 엇더턴 이러한일은 인민자톄의손실인것은사실이며 또한 순실하고실박하든 농촌인민들의 사상이 점점험악화되야 도의뎍관념(道義的觀念)이점점 경박되여가는것이라고 일부식자들은 매우유감되히생각한다더라(웅긔)

火災民에게 同情金遝至

참상을듯고유지로부터

하동군화개면 범왕리(河東郡花開面凡旺里)에서 큰불이낫섯다함은 이미보도된바어니와 이참상을 듯고 각디유지케씨는 다음과가튼 동정금을 보내엿다더라

南海郡昌善面 金錫均 貳拾圓
任實郡新德面 洪雲五 參圓
求禮郡土旨面 李漢儀 拾圓
花開七佛庵中 白米六斗
雙溪寺中 五圓及材木四百株 同
郡洞東百花心果 鄭基化 一圓
前川洞中 五圓
兩南記者大會 貳拾圓(하동)

青年鐵道自殺

지난 이십일일 오전한시십오분경 경북칠곡군약목면복성리 김두환(金斗煥)(二三)은 동면동안동(東安洞)부근텰도선로에서 진행하는 긔차에치여자살하얏다는바 이급보를접한 경찰서에서는 즉시 경관수명이출장검시한후 시톄는 그의본집에인도하얏다하며 그의자살한원인은 신병을비관하고 차라리 이세상을 떠나버리겟다는 결심으로 이와가티자살한듯하다고(대구)

安州에停電

일시는혼잡햇다

지난 이십삼일밤 아홉시삼분에 갑작이 안주시내(安州市內)청교리(淸橋里)건인리(建仁里)율산리(栗山里)남문리(南門里)일대에 뎐등(電燈)이 꺼지어서 일시는 큰혼잡을이루엇는데 원인은[illegible] 선이 끈허저서 그리되엿다하며 즉시 수선한결과 약십오분후에 다시밝은세상이되엿다더라(안주)

프로劇會總會

동경에잇는 조선프로극협회(朝鮮프로劇協會)에서는 지난이십일 오후일곱시반부터 동회관내에서 데이회 뎡긔총회를 개최하고 상무최병한(崔丙漢)군이 사회로 임원을 개선하고 다음과가튼 사항을 토의한후 오후십일시에 폐회하얏다는데 동회는 긔관지극성(劇星)을 발행코저 하는중 또지국설치에관한 사명을 가지고 다음과가티 세사람이 금번하긔를 리용하야 래월하순경에 출장할터이라더라

◇決議事項
一、機關紙『劇星』發刊의件 但 創刊號를六月十五日內로發行할것
一、支社設置와廣告募集員派遣의件
南道地方 宋術淳
京畿咸鏡地方 崔丙漢
北道地方 金永八
一、每月二回의脚本朗讀會開催의件

◇役員
常務 崔丙漢
庶務部 宋術淳 林石基
劇部 金永八
編輯部 馬海松 崔丙淡
音樂部 金賑義外二人

얼골을가리고 손으로

비녀를쌔여가

지난이십일밤저녁아홉시경에 해주읍내남행뎡 이백십구번디(海州邑內南幸町二一九)리모(李某)라는 녀자는머리에꼿젓든비녀를 엇던사람에게 도적을마졋다는데 이케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리모라는 녀자가 해주읍서문외(海州邑西門外)리승준(李承駿)의 집압흘밤아홉시경에지나는중에 난데업는 청년이 대드러얼골을 한손으로 가리고한손으로는 머리에 꼿친비녀를쌔아감으로 전긔리모는 웬세음인지 몰라멍하고 잇다가 웬놈이남의비녀를 쌔가느냐고 소리를치자 도망하든 그자는하는말이 나를잘하오면 이비녀는 줄터이니조금도 렴녀말고 잘하오다고하는바 마침그근처에잇는 로파가 이광경을보고 웬일이냐고 웃는데 그것을안 그자는곳도망하야형적을감추엇다더라(해주)

람파휘

▲요사이웅긔우뎐국(雄基郵便局)에서는 오월삼일의 일부인(日附印) 마친뎐보위톄(電報爲替)를 오월칠일에야 겨우 배달한일이잇다고!
▲그러면 웅긔우뎐국에 도착된 뎐보위톄가 웅긔시내에나 홍난에야 배달된 세음이되니 근래의 뎐보들은 이러케 멀는가?
▲뎐보로송금(送金)할째에는 응당급한일도 하엿슬터인데 이러케 무성의하고야 함부로뎐보송금이나하겟는가어듸!
▲톄신국당국자여! 이러케 건망증(健忘症)걸린우뎐국에무슨방책이업나요?